



- 남 광 회 회장 김진우, 총무 최승호
- 안양동문회 회장 안희인, 총무 김종일
- 부천동문회 회장 김홍식, 총무 신용균
- 의 광 회 회장 진병천, 총무 원 규



지역동문체육대회
2012년10월21일
운중농원
“남광회 종합우승”



▣ 지난 10월21일(일) 지역동문체육대회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위치한 ‘운중농원’에서 있었다. 이번 대회는 순환하는 조건에 따라 안양동문회가 주관했으며, 남부동문회와 부천동문회 그리고 의광회가 협심해 행사를 치렀다. 수도권 지역 동문체육대회로서는 금년이 5번째 대회로 지난 2008년10월 19일 안양동문회 주최/주관으로 산본공고에서 시작한 것이 그 첫 번째였다. 그리고 의광회에서 두 번째 대회를 주최했으며, 부천동문회와 남광회 순으로 이어져 다시 안양동문회로 돌아온 것이다. ‘선배님’ ‘아우님’의 횡수가 늘어나면서 대회의 내용이 변하는 것은 물론 많은 동문들에게 알려져 가족 참여율이 점차 높아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동문간 얼굴 익히기와

정보 교류의 장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속도가 점차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한다. 대회가 있는 날이면 일반적인 안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취급하는 품목과 종류에 관해서 조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래 왔던 것이고, 꿈꾸어 왔던 목적이 아니었나 하는 것이다. **점차 정보교류의 장으로 바뀌고 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가족끼리도 가까워져 부인 들끼리의 정보교환, 아이 들끼리의 교류가 있어 세 상사는 재미를 내고 있다고 한다. ‘선배님’ ‘아우님’의 호칭 또는 ‘형님’ 과 ‘동생’의 호칭이 대회가 끝난 지금도 귓가를 맴돌고 정겹게 느껴지는 것은 광운지역동문체육대회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소리 일 것이다.

안희인 안양동문회장은...

▣ 안희인 안양동문회장(24회, 사진右) 역시 대회를 통해 대회의 목적과 필요성을 알렸다. ‘같은 학교를 졸업했고,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같은 동네 또는 옆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동문들이 모여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니, 어느 모임보다도 다정다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대회가 끝나는 시간까지 모두 즐거운 시간이 되기 위해선 안전이 최우선이니 승부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각자가 주의해 달라.’는 인사말을 했다.



체육대회를 치르면서

김종일(30회)
어느새 한 바퀴 돌아 다섯번째를 맞이하니 감회가 새롭게 느껴진다. 해를 거듭 할수록 알차고 즐거워지는 행사이다 보니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고, 부담이 가중 되어왔다. 사회적으로 경기가 어려워 모두가 힘들어 하는 상황이라 행사 규모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동문들의 의견을 듣고 또 들어야 했으며, 수정에 수정을 몇 번씩 반복해야만 했다. 저렴하고 실속 있게 하자는 의견 때문에 직접 행사를 진행해야만 했고, 떡거리까지 뛰어다니며 장만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 많은 일을 누가할 것인가? 첫 행사를 직접 해 보기도 했고, 간접 경험을 해 보긴

했지만, 이번만큼은 도통 감 잡기가 어려웠다. 다양하고 풍성한 준비를 위해 이곳저곳에 견적을 요청해 예산과 맞춰 비교를 해야 했다. 한마디로 옷에 몸을 맞춰야 하는 형편이었다. 그런 와중에 학교(산본공고) 운동장 사용이 불가하다는 통보까지 왔다. 기능사시험이 있어서란다. 년 초에 예약을 해 두었던건만... 정말 난감했다. 모든 학교운동장은 이미 연말까지 예약이 되어있는 상태다. 체육공원과 기업체 운동장 등등 안양, 군포, 의왕시청으로 뛰어 다녀도 해결이 안됐다. 그러던 중 고상술 총무의 추천으로 운중농원을 확인하고 예약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점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

작했다. 식당이라 음식물 반입금지, 확성기 사용이 금지란다. 그래서 운영회의와 이벤트 관련 회의 등을 운중농원에서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절충을 해 취사가 안 되는 음식물 반입 및 일반 주류 아닌 막걸리 허용, 메가폰정도의 사용허가를 받으며, 상호 불쾌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기로 허가를 받았다.. 행사당일, 새벽부터 여러 동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떡, 편육, 두부, 김치, 게임기구 등등 취사가 안 되기 때문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것을 준비했다. 이른 시간부터 부천, 의광회, 남광회가 모였다. 행사는 시작되면서 확성기 소리가 크다고 민원부터 제기됐다.

진행자와 적당히 조율해 가며 진행을 해야만 했다. 그런데 이럴수가?. 부천동문회에서 우승기를 안 가지고 온 것이다. 어쩔 수 없었다. 우승기 없이 행사를 진행해야만 했다. 금년은 남광회가 우승이다. 부천동문회에서 전달해 주겠지? ㅎㅎㅎ 순서에 의해 행사를 진행되다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내년에 의정부에서 만날 것을 약속했다.

준비된 모든 것들이 많지도 적지도 않게 적당량이 장만됐다. 매번 행사가 끝나면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젊은 후배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 동문체육대회를 더 알차고,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총동문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